

성모님처럼 세상 바라보기



촬영 : 정지순 바오로 | 살레시오 기자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 2,19)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서 행복할 때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보잘것없어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별로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서 놀랄 때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무엇인가를 억지로라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다면 늘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겠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거나 애가 타기도 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매일의 시간 속에서 벌어집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숱한 어려움을 겪으셔야 했던 성모님은 헤로데의 박해가 닥쳐와 이집트로 떠나야 했고(마태 2,13-14), 아기를 봉헌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시메온이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을” (루카 2,35)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셨고(루카 2,43-45),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다니시는 것과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요한 19,25) 이럴 때 성모님께서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셨을까요? 그때마다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 (루카 2,19: 2,51 참조) 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봅시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삶 앞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벌어진 일이 엄청난 것일 때에도 당장에 호들갑을 떨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 벌어진 일에 무슨 의미가 혹은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수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좋은 결과가 있다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겨야 할까요? 반대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일이라면 거부하거나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망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할까요? 이때 그 어떤 일도 하느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시편 104: 묵시 21,6; 22,13)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고 못마땅하게 여겨지더라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성모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곰곰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모님을 닮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느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서로 좋게 작용하여 성장으로 이끈다는 것”을 마음 속에 새기며 모든 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청해봅시다.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13)

성령을 믿ना이다.

성령(聖靈)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삼위 일체 하느님의 제3위를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성령의 여러 호칭들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파라클리토(요한 14,16,26; 15,26; 16,7)라고 부르십니다. 곧 '변호자'라는 뜻인데, 우리말 성경은 '보호자'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위로자', '진리의 영'(요한 14,17; 15,26; 16,13),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로마 8,15), '친교의 영'(2코린 13,13)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성령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제1 저자인 성령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 있는 교회의 전통인 성전(聖傳)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돌보고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직무를 세우시고 오류에서 보호하시며 성사로써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며 교회 안의 다양한 은사로 활동하십니다. 끝으로 성령께서는 성인들의 증거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금빛**

교황님 한 말씀

“예수님의 상처 안에서, 삶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껴안읍시다”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님 상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삶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기꺼이 팔을 벌려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느님의 자비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부활 삼중기도 훈화 中 -

본당 소개

경산 용성성당



경산시 용성면에 위치한 용성성당(주임신부 : 이기혁 도미니코)은 주보성인으로 요셉성인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1995년 초대 정순재 베드로 신부의 부임과 동시에 본당으로 승격된 대구대교구 100번째 성당입니다. 하지만 용성성당의 시작은 '을해박해'(1815년)때로 올라갑니다. 경상도 북부지방의 박해를 피해 이곳 용성성당 근처 구룡산으로 피신해 온 신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우촌 '구룡공소'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정신이 어린 구룡공소에서는 많은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가 자란 부르심의 못자리이기도 합니다.

2018년 신앙유적지로 지정된 구룡공소는 최근 순례자가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본당 공동체는 농촌지역의 적은 수의 신자이지만 힘을 모아 알찬 공동체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혁 도미니코 주임신부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2023년 사목 방향을 성경 읽고 쓰기, 평일 미사 참례하기, 특별히 아버지 하느님과의 친교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신앙 일대기 정리하기', 먼저 인사하기, 뒷담화하지 않기, 칭찬하기, 본당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 등으로 본당 공동체의 친교를 배가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물 절약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통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 서는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는 노력하겠다고 사목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재 : 박현식 프란치스코 | 살레시오 기자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 말로 미사경문을 배워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 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Save us, Savior of the world, for by your 세이브 어스 세이비얼 오브 더 월드 포 바이 유얼 Cross and Resurrection you have set us free. 크로스 앤드 레저렉션 유 헤브 셋 어스 프리



十字架と復活によってわたしたちを解放された世の主、わたしたちをお救いください。 스쿠이 누시, 와 타시 타치 오 오스쿠이 쿠다 사이



受死祢毁灭死亡、复活我获新生命，主耶稣，서우스니후이미에스 왕, 푸 휘 위 휘 신 생 밍, 주 예 수, 荣耀的来临。 룡야오터라이 린.



Lậy Chúa cứu thế, Chúa đã dùng thập giá và sự phục 라이 쭈어 꾸 테, 쭈어 다 중 터보 짜 바 스 폭 sinh để giải thoát chúng con, xin cứu độ chúng con. 신 데 짜이 푹 쯡 끈, 썬 꾸어 도 쯡 끈.



Salvador del mundo, sálvanos, tú que nos 살바도르 델 문도, 살바노스 투 께 노스 has liberado por tu cruz y resurrección. 아스 리베라도 포르 투 크루즈 이 레수렉시온.

교회의 상징들

제대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한 구원의 잔치는 제대로 상징되는 예수님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는 성전의 중심이며, 미사 중 독서를 하기 위하여 제단에 오르내릴 때나 제대 앞을 가로지를 때 잠시 멈추어 제대를 향하여 존경의 표시로 머리 숙여 절한다. **금빛**

찬미받으소서(12)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 읽기
69항 우리는 이 땅의 재화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고, 또한 다른 생명체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을 것을 요청 받습니다. ... 오늘날 교회는, 마치 다른 피조물들이 그 고유한 가치가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거나 한 듯이 인간의 이익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 다른 피조물들에 관하여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생각하기

Q. 다른 피조물들에 관하여 ‘유용성’ 보다는 ‘존재’가 우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합니까?

창조 세계의 다른 피조물들은 단순히 인간을 위한 배경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그분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 하느님의 피조물은 인간을 위한 효용 가치와는 별도로 그 자체로 좋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내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 합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한다.” 이처럼 다른 생명체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고유한 가치와 법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무는 단순히 땀감이나 합판 원료가 아니라 자기 삶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저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나 휴양의 장소 정도로만 여기기보다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하느님의 피조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실천하기

5월 22일은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입니다. 이 날은 브라질에서 1992년 5월 22일 지구환경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을 발표한 날로 자연과 생물의 보존을 위해 만든 날입니다. 이번 달(5월)에는 ‘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며 이날의 의미와 배경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 해보며 모든 생명들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시다.

「칼럼」 2023년 미래 경쟁력은 생물다양성에서... “이대로면 결과는 뻔하다”



생태 영성 (5)

지구를 위한 희망, 인류를 위한 희망 - 2023년 ‘찬미받으소서 주간’ -

2015년 5월 24일에 인준, 6월 18일에 반포된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내신 두 번째 회칙이며, 교회 내에서 생태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문헌이다. 그리고 회칙 반포 5주년이 되던 2020년 5월,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을 때 교황님은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제정하시어, 이 특별한 시기를 통해 회칙이 인준된 날을 교회가 공적으로 기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생태 위기의 현실을 각성하며 이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셨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은 매년 5월 24일을 포함한 일주일간으로, 2023년은 5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다. 올해는 ‘지구를 위한 희망, 인류를 위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보편 교회와 각 지역 교회에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교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모당에서 기념미사가 봉헌될 예정이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아픈 현실을 직시하며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라고 권고하지만, 결코 절망이나 우울해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희망으로 내일을 노래한다. 우리도 함께 믿음과 희망을 담아 온 마음으로 ‘주님, 찬미 받으소서!’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란다.

윤 에피파니아 수녀
(예수성심시녀회)



몸의 신학 (11)

생명을 지향하는 성(性)

하느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듯이(강생의 신비), 사람 역시 사랑함으로써 자기 증여와 수용을 완성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성(性)을 통해 전달되는 생명은 우연적 결과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여 이루어내는 재창조이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기 증여의 사랑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性)을 가지게 만드셨다. 그것은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는 말씀이 이루어져 혼인이라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내어놓는 자기 증여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다. 이처럼 성(性)을 통한 온전한 자기 증여는 단순히 남녀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이라는, 당신을 닮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어진 남자와 여자 또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성(性)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열매맺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창세 2,19) 사람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며 그 정체성을 부여하듯이, 자신의 행위, 즉 자기 증여와 수여를 통해 맺게 되는 열매인 또 다른 생명 역시 다른 피조물과 같이 그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性)을 통해 또 다른 하느님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 성(性)은 본성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다.

석상희 요셉 신부
(교구 사목국 차장)



부부 이야기

부부 사랑은 하느님의 바라심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 1, 27)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친근함과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는 순간 아찔해집니다. 하느님께서 부부가 친밀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친밀해지려면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서로를 개방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살아가려면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삶을 매일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에도 아주 많은 결심을 합니다. 결심은 허공중에 맴돌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부부 사랑은 매일 매일의 결심과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인생활은 친밀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생활방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저희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가 서로 친밀하고 책임 있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바라심대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한 저희 부부는 친구같이 하느님의 바라심대로 큰 갈등 없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에덴동산에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과일도 먹여주고, 꽃도 선물하고, 맛난 반찬도 해놓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고마움은 당연한 일이 되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개방도 친밀함도 사라진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황무지에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만난 ME와 MR(Marriage Retorno, 성경을 통한 부부 성화 프로그램)은 첫 마음을 회복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평화와 성숙함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부가 친밀해졌고, 데레사를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일날 데레사와 미사에 참례하여 나란히 앉아 기도를 하면 일주일의 삶이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데레사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저녁 기도를 드릴 때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랑은 짐스러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것은 은혜이고 특전이며 우리에게 즐거움과 자유를 줍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가슴이 매우 벅찼습니다.
 이렇게 부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황주현 시몬, 홍명순 소화 데레사 부부 (ME 대구협의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27)

이야기가 있는 가족 사진

온 가족이 함께 미사 전례봉사를!



미사 후 본당 성전에서 기념촬영

저(김미형 미카엘라)는 2000년 김현철 바르톨로메오와 결혼하여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 가정을 이루고 본당에서 전례봉사를 하며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4시 미사(어린이미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교생 큰 아들 동근 프란치스코는 미사예물 봉헌과 독서 봉독을 했으며, 남편과 초등생 동훈 안드레아는 복사를

를 썼고, 저는 미사해설을 담당했던 기억입니다. 특히 냉담하던 큰 아들이 다시 전례봉사를 시작했던 즈음이라 더욱 뜻깊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대학생이 된 큰아들은 지금도 교리교사로 봉사하고, 작은 아들도 미사 전례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김현철 바르톨로메오, 김미형 미카엘라 부부 (만촌1동 성당)

※ 가톨릭 금빛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가족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300자 내외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억속으로

성모의 밤



1983년 레지오마리에 성모의 밤(성모당)

(제공: 교구사료실)

부모와 자녀 관계 (13)

‘가족 소통’으로 키워내는 ‘서로 다름을 수용하는 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팀 막내 A 씨)
 “선배들은 업무가 남았는데 퇴근하면 되나?”(팀장 B 씨)
 “제가 맡은 일은 다 했는데요.”(팀 막내 A 씨)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사례 중, 2020)
 X·Y·Z세대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있던 대화입니다. A 씨 B 씨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내면서 형성된 인식의 틀과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노력은 이미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오랜 가치의 틀을 벗고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 세대와 ‘다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가족 소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소통이 저절로 잘 될까요? 가족은 가깝고 편한 혈연관계라는 생각에 상대가 다 들어주고 먼저 이해해 줄 거라는 환상적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무슨 말을 해도 부모가 받아 줄 거라고,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이해하겠지,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맘 알겠지, 아내는 내가 좀 일방적이어도 남편이니까 진심을 알아 주겠지 하는 착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은 소통에 걸림돌이 됩니다. 게다가 민첩하게 적응해야 하는 현대 가족은 식습관, 생활방식에서부터 취업, 결혼, 출산, 종교 등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가치가 공존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소통에 더욱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신의 옳은 생각, 좋은 습관을 자녀에게 전하고 공유하려는

욕심을 놓지 못하면 스스로 불통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통보다 불통을 더 경험한 자녀는 자신이 속한 조직(학교)에서 성공적 소통으로 일과 관계의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조직을 떠나려는 충동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나는 취직하기(학교 가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라며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신의 가치가 옳다는 것만을 강요하면 팽배된 긴장감으로 대화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억압적 수직관계가 되어 불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깊을수록 부모가 먼저 자신을 낮춰 자녀에게 눈을 맞추고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부모가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마음의 수평관계를 이룰 때 상대 입장이 돼서 ‘너도 사정이 있네’, ‘고민되겠다’, ‘힘들겠어’와 같이 인정도 공감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의 주장과 감정 표현이 편안하게 오고 가는 소통이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부모는 경청, 반영과 탈 권위적인 인정으로, 자녀는 부모를 존경으로 따르면서도 소신을 보이는 가족 소통을 시도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뻘해도 ‘가족 소통’으로 서로 다름을 보고 인정하는 경험이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역량과 긍정적 관계의 틀을 만듭니다.
 어렵지만 사랑과 격려로 함께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감사합니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편지글

사랑하는 야고보, 요한이에게 - 엄마가 쌍둥이 아들에게 -

첫영성체 교리를 받겠다고 성당에 갔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아들들이 중2가 되었네. 엄마는 그때 너희가 사춘기인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0년의 냉담을 그만두고 다시 성당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아마 너희들은 처음에는 의아해 했을거야. 어릴 적부터 성당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아빠는 신자가 아니었으니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그때 성당을 너무 가고 싶었단다. 주님께서 마치 엄마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단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으니 말이다.
 복사 연수를 다녀와서 의젓한 복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미사 때 신부님 옆에서 열심히 복사를 서는 모습에 엄마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단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더 예쁠까!
 우리 아들들!
 엄마가 일이 있어서 성당에 갔을 때 너희들이 먼저 그곳에 와 있을 때, 같이 해 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기뻐단다. 신앙의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정말 고맙다.
 비록 아빠와 할머니는 아직 신자는 아니지만, 아빠는 주말마다

우리와 함께 성지 순례 안내서를 보며 성지를 정하고, 어느 성지든지 함께 가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엄마는 아빠가 신앙의 길에 한걸음 들어서신 것이라 생각해. 할머니께서도 처음에 성당에 간다고 말씀드리니, 반대는커녕 우리에게 열심히 성당을 다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엄마는 항상 매일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기도드린단다. 무엇을 더 청할 수 있을까? 너희가 있고 아빠가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아!
 우리 늘 감사드리며 처음 가졌던 마음 변치 않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사랑해!!



박주영 나탈리아 (청도성당)

추자도 성지순례길에서 찍은 가족사진

※ 가톨릭 금빛신문은 독자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700자 내외의 편지와 가족사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년의 명성

오늘은 어떻습니까?

공중과 방송에 지역의 화제와 우리 이웃들의 사는 이야기 등을 전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라이브 「오늘」이 있다. 사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며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은 존재의 증거가 되고 삶의 현장이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재단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삶의 과정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 과거의 행적이다. 과거는 믿음, 현재는 사랑, 미래는 소망이다.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사랑이 으뜸이면 현재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어제는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을 달리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지금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 ‘답이 없다’는 푸념과 함께 쉽게 체념을 한다. 그러나 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찾을 수 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믿는 우리들은 어제는 하느님의 자비로 살았고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내일은 하느님의 섭리로 살아야 한다. 자비에 대한 감사와 섭리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 오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비와 섭리는 곁에서 멀어진다.

성모당 성직자 묘지 입구에 Hodie mihi(오늘은 나에게), Cras tibi(내일은 나에게)가 새겨진 기둥이 있다. 오늘은 내가 땅에 누워있지만 내일은 내가 잠들 차례임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을 잘 살아야 하는 가르침 같은 표현

이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금(金) ‘황금, 소금, 지금’이 있다. 황금은 경제생활에 필요한 재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물질, 지금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간이다. 나의 존재인 지금이 없다면 황금과 소금은 쓸모가 없어진다. 의지력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내일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오늘에 자신이 없을 때 ‘내일 하지 뭐?’ 하며 오늘을 포기하고 쉬운 내일을 선택한다.

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 Carpe Diem(현재에 충실하라), Amor Fati(운명을 사랑하라) 세 개의 문장이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것 같다. 죽음을 기억하며 현재에 충실하여 미래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오늘을 온전히 봉헌하는 생활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내일은 항상 존재하지만 오늘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다. 흘러간 물줄기는 되돌릴 수 없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야 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를 명심하며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

최상원 토마스
(가톨릭신문 명예기자)



활기찬 노년

대안성당 어르신학당



순천 낙안읍성 나들이

대안성당(주임신부 : 채홍락 시몬) 어르신학당을 소개합니다. 어르신학당(매주 금요일 11:00-14:00)은 2014년 3월 설립되었으며 70세 이상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31명의 학생들과 20명의 봉사자가 성경교육, 요가교실, 가요교실, 미술, 특강과 연 2회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장인 김유철 대건안드레아 형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줄어든 학생수에 안타까워하며 “주임신부님의 많은 관심과 원장수녀님의 적극적인 지도, 그리고 구성원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되어 이상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한 건강증진과 말벗 나눔, 치매 예방 등에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친교의 해를 맞아 대안성당 ‘어르신학당’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금빛**

노년의 향기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

초등학교 시절, 교감 선생님의 권유로 가톨릭 신앙에 첫발을 내딛게 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늘 주님께서 저를 돌보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안에서 아내를 만나 두 아들과 함께 성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800m 높이의 벽지학교 분교에 발령받았으나 구룡 공소가 있어 주말마다 공소 예절을 바치며 성가와 교리 지도를 할 수 있었던 일 등 늘 그분은 저를 이끌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점을 떠올리면 먼저 본당 청년회 활동 시절이 기억에 납니다.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셔틀버스 구입 및 운영을 통한 어르신들의 미사 참례를 도왔고, 주일학교 교리반 개설을 통한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우로 써주신 덕에 항상 그분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교직 생활을 마친 후 선교 게이트볼 동호회의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호회의 사무국장으로 시작한 이 활동이 2012년 3월 교구장님의 승인 하에 제1회 교구장기 선교게이트볼 대회를 열 수 있었으며, 10여 년의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형제자매들의 건강 증진, 친교와 화합을 주님 안에서 나눌 수 있었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팔순을 넘어 삶을 돌아보니, 부족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은 저의 여정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건강히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의 끝없는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 가톨릭 금빛신문은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500자 내외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부연 가브리엘
(중방성당)



노년의 이해

치매와 동행하기 1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치매 유병율도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와 관련된 정보도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 치매 완치는 미래의 일입니다. 누구나 본인 또는 가족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65세가 넘으면 5세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유병율 또한 증가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족 중에 치매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증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치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더욱이 치매 증상이 있어도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없고 평소 말수가 적은 분이라면 알아차리기 어려워 많이 진행되고 나서야 그 증상이 치매로 인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간혹 치매에 의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언쟁을 하며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몇 가지 본다면

- 평소와 달리 무감동하고 말수가 줄거나 수다스러운 경우
- 예전 일은 잘 기억하면서 최근 일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

-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고 누가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경우
- 성격의 변화, 식탐을 하거나, 집을 나가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
- 약 드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드시거나 스스로 투약 관리를 못하는 경우
- 자주 냄비를 태우는 경우 등입니다.

무엇보다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통하여 조기 발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보이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치매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치매 진행도 늦추고 익숙한 가족들과 익숙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기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여 모두 치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기능의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치매가 의심된다면 증상을 숨기기보다 검사와 진단을 통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심사를 신청하고 등급에 따라 알맞은 서비스를 자부담 15~20%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외분 아네스
(대구가톨릭요양원 사무국장)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다슬기 해장국

필수재료: 다슬기 1컵, 부추 1/2줌, 얼갈이배추 200g,
육수재료: 국물용 멸치 8마리, 다시마 1장
양념: 된장 1.5큰술, 소금 0.5큰술, 다진마늘 0.3큰술



냄비에 물 5컵과 육수재료를 넣고 끓으면 다시마는 건진 후 10분쯤 더 끓여서 체에 남은 재료들을 거른 후 육수를 만든다.

다슬기를 소금물(물 2컵 + 소금 0.2큰술)에 넣어 깨끗하게 씻는다.



얼갈이배추는 손질해서 끓는 물(3컵)에 소금(0.3큰술)을 넣어 살짝 데친 뒤 식혀 한입 크기로 썰고 부추도 먹기 좋게 썬다.

끓는 육수에 된장을 풀어 넣고 얼갈이 배추를 넣어 끓인다.



배추에 간이 배면 다슬기와 부추를 넣고, 소금과 다진 마늘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서 마무리한다.



Tip! 다슬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며, 골밀도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외 숙취해소 및 혈관질환 예방, 눈 건강, 빈혈에도 좋다.

산책로

옥연지 송해공원

대구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에 위치한 옥연지 송해공원은 달성군 명예군민인 故송해 선생의 이름을 따 명칭 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졌던 옥연지 주변에 돌레길 데크, 백년수중다리, 바람개비 쉼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곳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튜립으로 유명한 장소이며, 옥연지를 따라 조성된 돌레길 데크를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걸으며 평탄한 산책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주차장도 4곳이나 될 정도로 잘 갖추어진 이곳에서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금빛**



자 가 용

네비게이션 '옥연지송해공원' 검색 (성모당 기준 40분)

대중교통

대구1호선(화원역) → 버스(달성2) → 옥포뱃꽃길1 → 도보2분 (성모당 기준 55분)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가톨릭교육원 가동 3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조환길 주간: 박상용 편집: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Fax. 053-250-3078
E-mail. dgfamily@dgca.or.kr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 평균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살레시오 기자단이 가톨릭 금빛신문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들!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마지막 주일 발행

가족성지순례 (13)

당고개 순교성지

- 어머니 성지 -



당고개 순교성지는 아홉 분의 성인과 한 분의 복자를 배출한 성지로, 기해박 해가 끝날 무렵 1839년 열 명의 남녀 교우들이 장렬히 순교한 곳이다. 이들은 본래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처형될 예정이었으나 서소문 밖 상인들이 설 대목장을 보아야 함으로 형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곳 당고개로 옮겨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순교자들을 모시게 되었다. 당고개 성지가 어머니의 성지로 꾸며진 사연은 복자 이성례 마리아는 박해로 감옥에 갇혔으며,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아내로서 당시 장남인 최양업 토마스가 신학생으로 유학중이었다. 복자 이성례 마리아는 수많은 고문과 회유 속에서 한때 옥에서 굶어 죽어가는 찢먹이와 옥 밖의 어린 네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며 흔들렸다. 하지만 다시 체포되었을 때는 먼저 순교하신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아들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의지하며 용감히 배교를 취소하였다. 그녀는 순교함으로써 인간적인 갈등과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 안에서의 모성애를 통해 성가정과 순교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냈다. 그녀의 나이 39세였다.

당고개 순교성지는 '찢레꽃 아픔 매화꽃 향기'를 주제로, 박해의 고통을 찢레꽃 가시로, 하느님의 은총을 매화꽃 향기로 표현하여 조성되었다. 성지 전체를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형상화했고, 모성적 사랑을 한국적인 모습으로 보이도록 표현하였으며, 성물방도 한옥으로 지었다. 성모성월을 맞아 이곳 당고개 어머니 성지를 찾아 이성례 마리아의 삶을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 보는 순례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 살레시오 기자

가는길

- 자 가 용** 네비게이션 '당고개순교성지' 검색(성모당 기준 4시간)
- 대중교통 버스** 고속버스(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지하철 9호선 → 동작역 → 4호선 환승 → 신용산역 → 도보17분 (성모당 기준 4시간 40분)
- 기차** KTX(서울역) → 버스(505번) → 용산전자상가17동 → 도보 3분(성모당 기준 2시간 45분)

57호 가정미션 :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성경 가운을 정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아침 식사를 하시나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3.04.30(주일) - 2023.05.14(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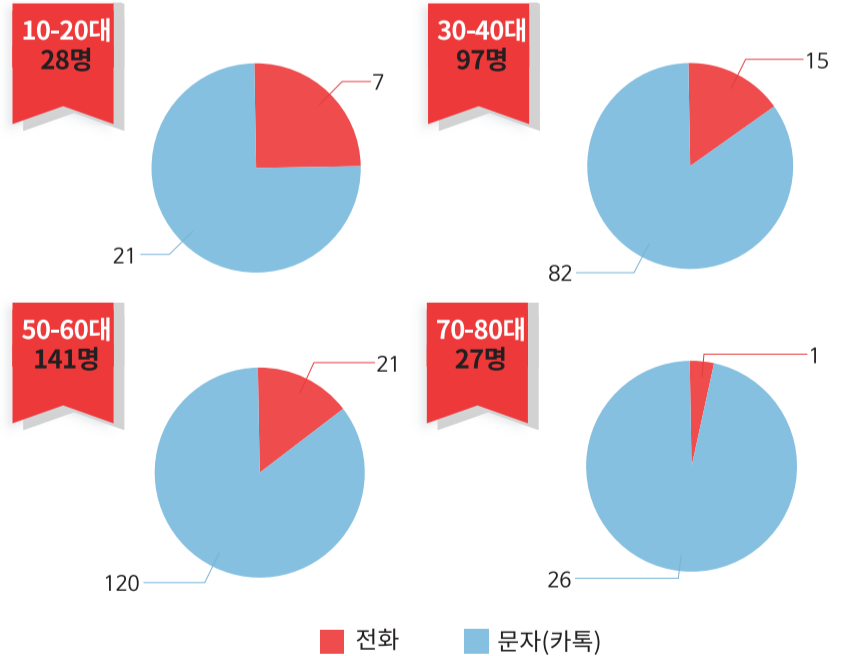
-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57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 연령대 : () 대
- 아침 식사를 하시나요?
네 / 아니오

지난(56)호 설문 결과

주제 : 용건 전달시 어떤 방법이 더 편하신가요?



공지사항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 생명을 주는 가정 -

5월 27일(토) 13:00~17:00

1부

13:00 생명대행진 (수성성당 → 범어대성당)

2부

14:10 토크콘서트 (범어대성당 대성전)

3부

16:00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범어대성당 대성전)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3114

- ※ 차량 혼잡이 예상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는 범어성당 광장 이용 부탁드립니다.
- ※ 수성성당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주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주관 |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독자 투고 모집

이야기가 있는 가족사진/편지글/노년의 향기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 dgsalesio@naver.com

※ 보내실 때 성함 및 연락처 필수 기재

마감 | 5월 12일(금)

문의 | 053-250-3077·3114

전시회

SPC 친환경전

장소 | 예담갤러리

주최 |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기간 | 2023.05.15 - 05.27